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전국 최고로

### 도, 38개의 사업 추진 중... 도민 편익 증진 위한 주민 밀착형 현장서비스 추진 강화

전북도는 민생현장에서 손쉽게 현장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란 지역, 신체, 경제적 제약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각 분야별로 38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추진 중인 보건, 복지 분야이다.

영,유아 서비스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인 대상으로는 진행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찾아가는 인구조육'은 교육기회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자녀이해 방법 및 출산의 가치 등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가족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노노케어' 등을 통해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누비는 '신나는 예술버스',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방문체육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체육 서비스 접근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에 영화상영, 예술공연, 생활체육 등의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문화관광 선상공연'은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상공연이 진행되며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안전,행정, 교통,환경, 산업,경제,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최초로 시행된 '버스 DRT(수용응답형대중교통) 서비스'는 고령화된 주민들의 이동권 보

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과소화 추세에 있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지난 2011년부터 임신부 이송 지원비 지원과, 권역별 분만,외래산부인과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서비스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국별 아이디어 발굴과 도민제안 공모 및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지자체 정부3.0 평가 '국무총리 표창'

### 전북투어패스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등 인정

전북도는 25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삼라농정, 토탈관광 등 도정의 주요분야에서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현안 해결 등 '개방,공유,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우수사례로 도와 시,군, 민간이 협업해 전라북도를 단일관광권으로 묶는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인 '전북투어패스'가 주목을 받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농민이 주도하는 협치 농정체계

인 삼라농정 거버넌스를 통한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버스 이용 수요가 낮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소형승합차를 활용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벽오지마을 수요응답형버스' 사업이 호평을 받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

전북도가 2022년까지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임야 총 2만3,969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4년부터 6개소 19ha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해 8,468tCO<sub>2</sub>의 탄소를 흡수해 1.2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5년간 임야 총 면적 2만3,969ha에 신규조림(651ha), 산림경영(22,990ha), 식생복구(328ha, 16만본), 산림바이오매스이용(1,875대)의 사업을 추진해 총 387만517tCO<sub>2</sub>의 탄소를 흡수해 탄소 거래매매가 58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김제시는 25일 김제시청에서 이견식 김제시장과 정호영 도의회 부의장, 전해성 도 투자유치과장, 니병문 김제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룡과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특장차업체 '호룡' 지평선산단 입주 협약

### 전북도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개소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감 커

전북도가 특장차전문제조업체인 호룡과 투자협약 체결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개소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5일 김제시청에서 이견식 김제시장과 정호영 도의회 부의장, 전해성 도 투자유치과장, 니병문 김제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룡과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호룡은 김제 만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던 중, 이번에 다시 김제시 백구농공단지 8만45.3㎡(2만4,214평) 부지에 470여억원을 투자해 두번째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16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룡은 1990년 1월 17일에 법인을 설립하고,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모토로 특장차를 제작해 오고 있다.

특히 (주)호룡에서 개발한 물류 운반용 고가사다리차, 용역용 고소작업차, 산업장비 등은 산업의 이기로서 고층 물류 운송과 건설인력 절감으로 국가경제에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호룡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안전하

고, 편리한 장비를 제공해 전 세계 고객과 함께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 TOP10의 특장회사, 매출 1조의 회사로 도약하고자 오늘도 전직원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지난 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특장차 제작자가 인증을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이중고를 불편함을 단박에 해소하는 한편 특장차 자기인증지원 및 부품개발 등 튜닝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인재용 기자

##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 개최

### 장수야야 유적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3건 집중 심의

전북도는 25일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동부권 발전사업을 선정,심의하고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시군별 2018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이어 동부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군에서는 2018년 동부권사업으로 식품 6개, 관광 11개 등 총 17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장수야야 유적정비사업 등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집중 심의했다.

그 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78억원을 지원, 27개 사업을 추진해 동부권 시군의 식품,관광 산업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식품분야 평균일지리는 산업별 10억 원당 소요되는 고용일자리 수 26명, 취업일자리 수 36명보다 각각 86, 76명이 많은 112명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0년 대비 기업유치 84개소 증가, 매출액 310억원 증가, 일자리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관광분야는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동부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동부권사업이 그동안 생산,유통시설 기반구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시기"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력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경진원, 중기 흡소핑 입점 지원 추진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흡소핑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흡소핑 입점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흡소핑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방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흡소핑을 통한 첫방송으로 영농조합법인 애농에서 생산하는 '보리새싹카레'가 26일 15시부터 30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향후 주식회사 캄코아의 치즈폼은

닭가슴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더 고은의 떠먹는 군고구마 스위트미, (주)올리오의 통주물 리미티드 8중세트(남비 등), 삼치농산물 유통농조합법인의 블랙베리, 아로니아 분말 등 흡소핑을 통해 전북 우수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

경진원 담당자는 "높은 방송비용 부담과 치열한 입점경쟁으로 기존 흡소핑에 진입할 기회가 원천 봉쇄됐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흡소핑을 통한 판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